

올해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연말연시 광주극장과 함께 '노웨어 스페셜' '사울 레이더' 등 개봉

국립중앙도서관, 대출도서로 알아본 '올해의 책' 발표
문학 '달리구트 꿈 백화점', 비문학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1위



올 한해 국민들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빌려봤을까?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올해의 책'은 이미에 작가의 소설 '달리구트 꿈 백화점' (문학)과 오은영·차상미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비문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공공도서관 대출도서로 알아본 '올해의 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도서관 정보나루'의 대출데이터 9654만1685건을 분석한 결과다. 도서관 정보나루는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1320곳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문학부문 1위를 차지한 '달리구트 꿈 백화점'은 잠이 들어야만 입장 가능한 꿈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럽고도 기묘한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소설이다. 이 소설은 2020년 7월 출판된 후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에 올라 독자들의 사랑을 이어가며 10개월 만에 대출순위 1위에 올랐고, 이후 7개월간 연속 1위를 유지하며 서점에 이어 공공도서관을 휩쓸었다.

이 책은 다른 문학작품과는 달리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로 시작해 2020년 4월 전자책에 이어 그 해 7월 단행본(종이책)으로 출판됐다. 이미에 작가의 독특한 판타지 세계와 가슴 울리는 이야기는 2편까지 확장됐으며 1편보다 빠른 속도로 공공도서관 대출 상위권 반열에 올라 지난 11월 대출순위 4위에 진입했다.

2위는 손원평의 '아몬드'가 뽑혔다. 책은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 '윤재'의 이야기를 통해

'평범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설이다. 이어 3위는 신비로운 집회점을 둘러싼 사람들의 비밀을 추리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차지했으며, 4위에는 김초엽 작가의 공상과학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올랐다. 이밖에 '종의 기원',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 '파친코 1', '여행의 이유'가 차례로 6~10위를 기록했다.

비문학 부문에서는 육아 상황에 따른 현명한 대화법을 알려주는 오은영·차상미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가 대출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많이 읽힌 것으로 나타났다.

2위에는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이 돈의 다섯 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해 들려주는 '돈의 속성'이 올랐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3위를 차지했다.

2021년 인기대출도서 문학

순위	도서	작가
1	달리구트 꿈 백화점	이미에
2	아몬드	손원평
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4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5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6	종의 기원	정유정
7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8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9	파친코 1	이민진
10	여행의 이유	김영하

지했다.

이어 '사피엔스', '선량한 차별주의자', '나의 하루는 4시30분에 시작된다',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편 최근 5년 한국문학 대출순위 50위권의 작가분포를 분석한 결과, 여성 작가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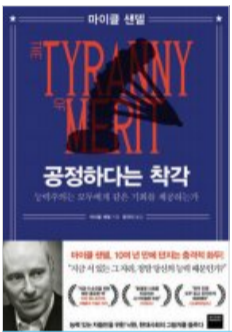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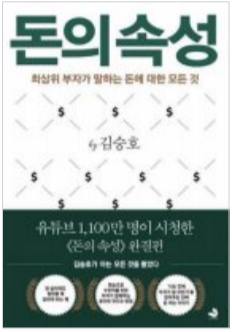
지난 2017년에는 조정래, 김진명, 김훈 등 남성 작가의 비중이 50%를 차지했는데 반해 2021년에는 남성 작가의 비중은 14%로 하락한 반면 여성작가의 비중은 50%에서 86%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 속에 담긴 공감과 위로의 이야기가 공공도서관 대출을 주도하는 20~40대 여성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으로 공공도서관 대출량이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지난해 대비 52.2% 증가하여 예년의 모습을 되찾았다. 전국적으로 7월(957만2474건)에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으며 11월(763만9468건)에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021년 인기대출도서 비문학

순위	도서	작가
1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오은영·차상미
2	돈의 속성	김승호
3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4	시선으로부터	유발 하라리
5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6	나의 하루는 4시30분에 시작된다	김유진
7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리
8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심리
9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 77	염찬환
10	방구석 미술관 1	조원재



'노웨어 스페셜'

광주극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작품을 상영한다.

30일 개봉하는 '노웨어 스페셜'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장문 정소부 '꼴'이 혼자 세상에 남겨질 4살 아들 '마이클'을 위해 특별한 부모를 찾는 여정을 그린 영화이다.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의 7년 만의 신작으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작은 아씨들', '미스터 존스' 등의 작품에 출연, 차기 '제임스 본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배우 제임스 노튼이 주연을 맡았고, 아빠와 계속 함께 있고 싶은 아들 '마이클' 역은 신인 아역 배우 다니엘 라몬트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1월1일 관객을 만나는 '사울 레이더: 인 노 그레이트 허리'는 1950년대 뉴욕의 일상을 사진으로 촬영해 '컬러 사진의 선구자' '뉴욕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울 레이더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같은 날 개봉하는 '램'은 눈 폭풍이 휘몰아치던 크리스마스 날 밤 이후 양 목장에서 태어난 신비한 아이를 선물 받은 마리아 부부에게 닥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제74회 칸영화제 독창성상을 비롯해 제54회 시체스영화제 작품상, 신인감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대만 뉴웨이브의 거장 에드워드 양의 장편 데뷔작인 '해탄적 일천' (1월6일 개봉)은 해변에서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들은 '자리'와 13년 만에 유명 피아니스트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웨이창'이 여인으로 성장해가는 시간을 그리고 있다. 작품은 1983년 이후 39년 만에 국내에서 정식 개봉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눈으로 듣는' 바흐의 피아노 선율

이다희 '푸른 전주곡 WTC BWV853' 전, 1월 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전시장에 걸린 그림 옆의 QR 코드를 입력하면 잔잔한 피아노곡이 흘러나온다.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가 연주하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이브곡집' 1권 중 '8번 전주곡 BWV853'이다. 단순한 색면(色面)의 조합으로 만든 느껴졌던 작품은 피아노곡을 들으며 바라보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각각의 색면은 음악 각 마디의 음색과 음형을 작가가 철저히 분석해 만들어낸 것으로, '음악이 연주되는 순간'을 회화로 표현해냈다.

지난 2020년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이다희 작가 초대전(2022년 1월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푸른 전주곡 WTC BWV853'은 음악과



QR코드를 인식시켜 음악을 들으며 감상하는 이다희 작가의 작품 '바흐 전주곡 BWV853'

그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눈으로 보는 음악'을 만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다. 피아노 선율이 회화로 변환된 모습은 음표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을 만들어내듯, 다채로운 색면의 경계가 서로 뒤섞이면서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냈다.

전시에는 '음악의 구약성서'로 불리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이브곡집' (WTC)1권 중 '8번 전주곡'을 시각화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클래식 음악의 수집된 데이터와 화음을 분석한 드로잉, 수채화, 유화 작품과 함께 곡이 갖고 있는 마디, 마디를 40점의 회화로 표현한 대형 설치 작품 '푸른 전주곡' 연작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안내문을 살펴보는 게 좋다. 먼저 QR 코드를 인식시켜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감상하고, 전주곡의 형식을 훑어보며 음악이 색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어 여러 연주자가 같은 곡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는지 소리와 형태로 살펴보고, 음악이 그림으로 변환된 과정을 설계한 흔적(드로잉)을 통해 작가가 개발한 '음악변환시스템'을 알아간다.

작가는 "현란한 테크닉이나 감수성을 자극하는 수많은 음악 가운데 바흐를 회화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지적 오락의 대상이며 본능적으로 감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맞먹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술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2011년부터 꾸준히 클래식 음악에 집중해 형식에 따른 번안 시스템 정리와 연주된 소리를 기록, 국내외 영구에서 '음악변환시스템'을 소개해왔다. 이화여대에서 서양화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게됐고 영국 클래스고 예술대학에 입학, 회화 석사를 취득 후 국내의 전시 등을 통해 WTC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운드 아티스트 다니엘 모리슨 닐과 협업, 재편곡된 '클라이브 평균율곡집'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흙'으로 빛은 친구들

임영자 작가, 2월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올해 초 전남도내 신진 여성 작가들의 등용문인 '여성(女新) 나르샤' 공모전을 시작해 작가에게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올해 마지막 전시를 진행 중이다.

임영자 작가의 '기억과 상상으로 시간 속의 자연 친구들' 전(2022년 2월 28일까지)이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전남여성문화박물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열리고 있다.

은퇴 후 귀촌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꿔온 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흙'이라는 자연의 소재로 빛은 친구들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에서는 사랑하는 커플의 모습을 담은 '프로포즈', 두 남녀의 새로운 출발을 그린 '인생의 출발점', 2022년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를 그린 '호랑이 가족' 등을 비롯해 '소녀감성', '중년감성', '여름추억', '꽃을 든 여인', '행복한 핑크', '12계절의 아름다운 꽃' 등 작품 17점을 만날 수 있다.

임 작가는 지난 2012년 3월에 도자기에 입문했으며 현재 합평에서 교육농장 '갤러리 하루'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1-260-733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항기를 담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